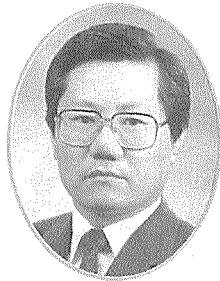




# 제도의 정립자 · 공정경쟁의 감시자로서의 정부

이 자료는 지난 12월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석유협회 주최 석유세미나에서 행한 인사말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김 태 곤  
<상공자원부 제3차관보>

먼저 연말을 맞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0여년간 우리 경제는 질적·양적 측면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지속적으

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정부규제로 인하여 민간 자율에 의한 성장 잠재력이 상당부분 잠식되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세계화시대」에 대비하고 내년초 출범이 확실시 되는 WTO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경제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종래의 정부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석유자원은 국가생존에 필요한 전략물자의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그동안 정부에서 석유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석유산업이 세계 11위의 생산력을 가질만큼 성장하였고, 해외진출까지도 활발히 모색되고 있는 등 공급측면에서의 안정성이 확보됨으로써,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을 축소할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석유산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석유산업자유화 정책을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하에 지난 1월 1일부터 유가 자유화의 전단계로서 유가연동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수급 및 가격이 결정되도록 석유산업 전반의 자유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사시 외부충격에 대단히 취약한 석유수급 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프랑스 등 외국의 예와 같이 수급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개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 방향하에 추진중인 석유산업의 자유화는 현재 정부가 규제중인 석유산업 부문에 대한 허가 및 승인제도 등을 전면 완화하여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이 시장기능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선 석유가격 결정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에서 유통단계별로 석유가격의 최고가격과 유통마진을 정하고 있으나, 시장의 수급사정에 따라 석유가격이 결

정되도록 완전 자유화하고,

둘째, 현재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는 석유의 수출입도 가격자유화에 따라 전면 자유화하되, 최소한의 국내 수급안정과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수출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며

셋째, 석유정제업과 석유유통업에 대한 현행 허가제도도 등록제로 대체하여 진입장벽을 제거하되, 일정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넷째, 석유부문에 있어서의 경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산업을 자유화한 이후에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석유산업의 대외개방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한편, 시장기능에 의한 석유산업의 효율성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제도의 정립자」, 「공정한 경쟁의 감시자」로서 석유비축등 제도적 장치를 관리하고 시장실패의 폐단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지만,

결프전 등과 같은 예외적 비상사태시에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석유수급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석유산업자유화 추진과 병행하여 석유관련 세제와 석유사업자금제도도 자유화 시대에 알맞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석유산업자유화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은 물론 석유업계와 소비자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 구체적 방안과 추진일정에 대해 충분히 협의·조율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자유화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예상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본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들이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미래좌표를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